은행

하나금융이 그리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5. 15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6.55% 인수

5월 15일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은행, 두나무의 지분 2,284,000주를 1조 3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시. 이는 두나무 총 지분의 6.55%에 해당되며, 거래 완료 후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가 될 예정. 하나금융은 금번 투자 목적에 대해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금융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 및 손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하나금융,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 밸류체인 확장

하나금융은 연초 신한지주, 지방은행,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금거래소를 운영 중인 아이티센글로벌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바 있음 (검토 중).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

금번 투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하나금융은 두나무와의 협력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 예를 들어 1) 스테이블코인 발행, 커스터디는 하나은행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Circle과 유사한 형태), 2)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거래 네트워크는 두나무 (업비트), 3)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금융상품인 RWA (Real World Asset)는 하나증권 (미국의 증권사이자 토큰화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Robinhood와 유사한 형태), 4)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결제 및 생활금융은 하나카드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 더 나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에도 주목 필요 (예상 지분율 5% 수준). 플랫폼과의 추가적인 협업까지도 기대 가능

참고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상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은 논의 중인 상황

전통 금융사 – 거래소 지분 인수 통한 인프라 선점 경쟁 진행 중

전통 금융사의 거래소 지분 취득 통한 인프라 선점 경쟁이 본격화.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지분 92% 취득을 추진 중이며,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와 함께 코인원 지분 인수를 논의 중

금일 주가 조정은 환율 상승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금일 6% 하락. 다만 이는 두나무 인수(자본비율 11bp 영향에 불과)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기 때문. 금번 하나금융의 두나무 투자는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그림1 **하나은행 – 두나무 거래 구조**

자료: 하나금융지주

표1 **투자 개요**

투자 주체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거래 상대방 및 대상 주식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두나무 지분 2,284,000주	두나무 총 지분의 6.55%
투자 금액	총 1조 33억원*, 주당 439,252원	회계법인 평가 주당가치 457,193원 (DCF Base Case)
투자 목적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신금융 경쟁력 확보	
주요 일정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SPA): '26.5.15 매매대금 지급 및 주식 수취: '26.6.15(예정)	

주: *그룹 CET-1비율 약 11bp에 해당
자료: 하나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투자 목적**

신금융 경쟁력 확보	예금토큰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하나금융그룹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공동 진출 등
손님기반 확대	'업비트'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신규 영업채널 확보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완료 시) 간편결제 시장의 선도기업이자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협업을 통한 하나금융그룹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 확장 추진*

*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 중으로, 합병 완료 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보유하게 되며,
하나금융그룹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요 주주로 참여 예정 (현재 예상 지분율 5% 수준)

자료: 하나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전통 금융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형태

시기	내용
2025년 8월	하나금융, USDC 발행사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MOU 체결
2025년 12월	하나금융,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금융 인프라 개발 관련 MOU 체결
2026년 1월	하나금융, BNK · iM · JB금융, SC제일 · OK저축은행 등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실사용이 가능한 기업 확보. SK텔레콤 합류 유력
	- 하나금융-SK텔레콤: 하나SK카드 · 디지털 금융 플랫폼 ' 핀크(Finnq) ' · 비트고 코리아 등 협업 사례 有
2026년 1월	하나금융, 신한지주, 삼성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논의 중
2026년 3월	한국금거래소를 운영 중인 아이티센글로벌과 협력 논의 중

자료: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스테이블코인 시장 예상 밸류체인 (예시)

구분	1단계 (발행)	2단계 (커스터디 · 계좌)	3단계 (유통 · 거래)	4단계 (금융상품)	5단계 (결제 · 생활금융)
역할	디지털자산 · STO 발행	커스터디 · 법정화폐 연동	온체인 자산 유통	투자상품 구조화	결제 · 정산 · 실사용
핵심 내용	토큰 발행	디지털자산 보관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전통 자산의 디지털화	생활금융의 디지털화
주체 1. 네이버 (예시)	네이버	케이뱅크	두나무(업비트)	미래에셋그룹	네이버파이낸셜
주체 2. 하나금융 (예시)	하나은행	하나은행	두나무(업비트)	하나증권	하나카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4 증권사, 거래소 지분 추진 중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지분 92% 취득을 추진 중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와 함께 코인원 지분 인수를 논의 중

자료: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쟁점 사안

쟁점1: 대주주 지분율 제한

구분	대주주 지분율 제한 찬성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반대
논리	거래소의 지배력 분산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글로벌 사례 없음
해석	거래소가 금융시장 인프라 역할을 담당,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율을 수치화해 제한하지 않음. 간접 규제를 통해 지배구조 통제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

쟁점2: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구분	은행 과반 컨소시엄 찬성	은행 과반 컨소시엄 반대
논리	금융안정 · 통화정책 등 관리 필요성	은행이 지배적인 발행 형태를 규정하는 글로벌 사례 없음. 지분율은 사업 특성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사안
해석	제도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및 시장 자율성을 강조

자료: 금융위,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